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서가이 열친심) 독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勉爾孜孜 惜寸陰 (면이자자 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老矣無能 徒自悔 (노의무능 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頭邊歲月 苦駸駸 (두변세월 고침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도다.
遺子滿籯金 (유자만영금)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중국 심양에서 피어난 둔촌 선생의 충효사상과 선비정신



대종회 주영 회장과 종덕 문화이사는 9월 20일에서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심양에서 열린 "2026년 심양 둔촌문화예술제"에 참가하여 둔촌(遁村) 이집(李集)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지 조선족 동포 및 한인회 교민들과 영예로운 문화교류의 장을 함께 하였다.

9월 20일은 교민을 위한 문화 교류에서 총영사와 동북 3성 한인 회장과 각계 협회에서 42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를 하였으며, 21일은 중국 국경절 행사에 참석하고, 22일은 둔촌문화예술제에서 230여명이 참석한 교포와 한인들의 문화공연장에서 18만 광주이씨를 대표하여 격려사를 하였다.

그 동안 심양 지역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둔촌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정신을 다듬는 '둔촌 백일장'이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문화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올해부터는 행사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충한 '둔촌문화예술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층 다채로운 종합 문화 예술 행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성남문화원 방영기 원장과 40여 명의 성남시 예술공연단이 함께하여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행사 현장에서는 둔촌 선생의 정훈(庭訓) 소개와 대표 시(詩) 낭송이 이어졌으며, 국악단과 합창단의 품격 높은 공연, 한류를 이끄는 K-POP 무대, 그리고 현지 교민들이 직접 참여한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한데 어우러져 뜨거운 감동과 찬사를 이끌어 냈다.

이날 주영회장은 축사를 통해 둔촌 선생께서 몸소 실천하신 충효사상과 결백한 선비정신은 우리 문중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성남시가 배출한 역사적 위상이 매우 높은 큰 인물의 유산"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중국 심양 땅에서 20년 넘게 이 정신을 계승하고 기려온 현지 교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둔촌 선생의 자랑스러운 선비정신이 널리 선양될 수 있도록 대종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뜻을 밝혔다.

이번 심양 둔촌문화예술제는 단순한 문중 행사를 넘어, 해외 교민 사회에 뿌리 내린 자랑스러운 조상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한·중 문화 교류의 지평을 넓힌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중국 심양 둔촌문화예술제 축사



안녕하십니까, 광주이씨대종회 회장 이주영입니다. 만물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뜻깊은 계절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중국 심양의 웅장한 무대에서 '2026년 선양한국주 한·중 문화교류 둔촌문화예술제'의 성대한 막을 올리게 되어 감회가 무척 새롭고 깊은 기쁨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둔촌 선생의 위대한 정신을 품고 성남시의 자매 우호도시인 이곳 중국의 심양까지 직접 찾아와 뜻깊은 한중 문화 교류의 장과 둔촌문화예술제를 주최해 주신 성남문화원 방영기 원장님을 비롯한 성남문화원의 문화예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먼 길을 찾아온 한국 성남문화원의 예술단원들을 뜨거운 환대와 진정어린 협조로 맞아 주시고 오늘 중국 둔촌문화예술제를 후원해 주신 심양 한인회 김철락 회장님, 이정인 수석부회장님, 백종범 단동 연합회장님, 재심양대한체육회 손성종 회장님, 중국 심양의 신한민속촌 회장님이신 김관식 예술 선배님을 비롯한 문화예술인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축하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김성민 총영사님을 비롯한 이곳 심양시와 동북 3성의 한인회장님과 동포 여러분께 전국 18만 광주이씨 문중을 대표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중국 둔촌문화제는 단순한 일회성 공연이나 행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 광주이씨 1대조 이시자 고려말의 위대한 문장가요 참된 스승으로서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곧은 절개와 높은 학문적 지조로 당대의 귀감이 되셨던 둔촌 이집 선생의 숭고한 충효사상과 삶의 어진 가치를 실천하셨던 선비 정신을 시공간을 넘어 이곳 중국 땅에서 다시금 피워내는 뜻깊은 자리라 하겠습니다.

둔촌선생께서는 현재 성남시를 포함하는 옛 광주부, 광주군의 영역에서 태어나시고, 지금의 성남시의 영역인 금토, 탄천 일대에서 시 문학과 후진 양성 등 활약을 하시고, 성남의 하대원동 둔촌 대로변에 묻혀 계시는 성남의 역사 인물로 정신적 지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서울 강동구의 둔촌동 지명도 둔촌 선생의 아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수백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선생께서 남기신 고결한 정신은 시공간과 국경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품어야 할 정신적 유산이자 빛나는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자매도시인 이곳 심양시에서 20여년간 중국 둔촌백일장이 개최되어 왔고, 올해는 중국 둔촌문화예술제로 자연스럽게 승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둔촌선생 탄신 7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성남시에서는 성남문화원을 중심으로 성남시의 역사적 스승인 둔촌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축제를 한창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예술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가장 깊이 있게 이어주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류, K-컬처가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한류 예술의 첨단을 가고 있는 성남문화원의 예술단과 심양의 조선족 동포예술단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무대가 이곳 심양의 시민과 동포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 소중한 문화예술적 교류가 한국 성남시와 중국 심양시 자매 도시간의 우호 증진과 지속 가능한 문화적 동반자로서의 연대를 한 단계 더 높이 끌어 올리는 굳건한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저희 광주이씨대종회는 앞으로도 성남시의 역사인물로 존경받고 있는 둔촌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선비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먼길을 달려와 행사를 품위있게 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추석 명절을 맞아서 늘 건강과 평안, 그리고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심양 교민을 위한 문화공연

일시 : 2026년 9월 20일 오후 6시 / 장소 : 중국 길림성 심양시 메리어트 호텔 / 참석자 : 420명



주영회장 즉석 축사

안녕하십니까, 광주이씨대종회 회장 이주영입니다. 이곳 중국 심양시에 한인회 주관으로 문화공연을 하는 자리에 과거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했던 사람이 왜 왔나 이렇게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제가 경기도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광주이씨대종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단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성남시도 과거에는 광주땅이었습니다. 옛날에 광주구라고 부르고 광주군이라고 부르고 하던 그 땅에 일부가 성남시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주이씨 시조 바로 아래 둔촌 이집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서울 강동구에 가면 둔촌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둔촌동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거기도 옛날에 광주땅이었는데 저희 선조 둔촌 이집선생 아호를 따서 동네 이름이 둔촌동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둔촌 선조님이 워낙 절의가 뛰어나시고 또 대문장가 이시고 하셔서 업적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청렴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어버이를 사랑하는 그 정신이 지금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해서 성남시, 성남문화원, 예총 등이 우리 둔촌 선조님을 성남의 역사 인물로 기려지고 계십니다. 문화제를 열어 주시고 그리고 작년까지 한 20여년 동안을 이곳 심양땅에서 둔촌 중국 백일장 이 행사가 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백일장을 뛰어 넘어서 문화예술축제를 심양에서 해보자는 방영기 성남문화원장의 큰 웅비한 그 뜻을 따라서 이번에는 대거 문화예술단을 이끌고 이곳 심양과 엊그제까지는 장춘을 방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웅대한 자리에서 한국의 전통 예술 문화를 우리 교민들과 함께 연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또 가슴 뿌듯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심양의 한인회 김철락 회장님 비롯해서 동북아의 한인들을 대표하시는 회장님, 전임 회장님 또 저 단동에서까지 많은 한인 대표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 귀빈들을 면면을 보니까 우선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김성민 총영사님 비롯해서 제가 다 호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요녕성 조선족협회 이용각 회장님 민주평통 심양 협의회 양남철 회장님 동북 3성 연합회 김정렬 회장님 중국 조선족 기업가 협회 허성용 회장님 동북 3성 연합회 손명식 명예회장님, 이분은 오랫동안 한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오신 분이시지요, 또 심양 한인회 전임 나종수 회장님 또 단동한인회 백종범 회장님 그 외에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일일이 다 호명하기가 시간이 그래서 이 정도로 줄이면서, 이렇게 우리 성남 문화예술인들을 따뜻하게 또 감동을 주고 환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18만 광주이씨 우리 종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둔촌 선조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더 자세한 말씀은 다음 기회에 넘기도록하고 이번 성남의 문화예술단 방문 행사가 이 공연을 비롯해서 여러번 있는데 내일 저녁에는 둔촌문화예술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연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성남시 예술단의 아름다운 무대가 우리 심양시를 비롯한 동북 3성에서 우리 한민족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 소중한 예술적 교류가 우리 한국의 성남시와 중국의 동북 3성 심양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간의 우호 증진과 문화적 연대를 한층 더 높이 끌어 올리는 굳건한 마중물이 되기를 저희 광주이씨대종회에서도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우리 광주이씨대종회는 앞으로도 둔촌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선비정신 널리 알리는 만큼 이곳 심양시 동북 3성에서 앞으로도 우리 둔촌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선비정신을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심양시를 비롯한 동북 3성에서의 앞으로 성남문화원이 펼쳐갈 문화예술행사에 저희들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추석명절이 곧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공연을 아주 즐겁고 흥겹게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무대에 있다 하면서 좀 흔들고 목청도 돋우시고 같이 즐기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명절 보내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철철 넘쳐 흐르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둔촌 선조님의 문향(文香)속에 펼쳐진 문학의 향연

대종회(주영 회장)는 9월 30일(수), 한국작가협회가 주최하고 둔촌문학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광주이씨대종회가 후원하는 "제9회 둔촌 이집 문학상" 시상식이 둔촌 재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종회 주영 회장을 비롯한 대종회 집행부 임원진과 각 지파 종회장과 집행부 종인들, 그리고 문단을 대표하는 각 협회 회장단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다.

종친들과 문학인들이 한데 어우러진 현장은 선조님의 문학적 유산을 기리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영예의 본상은 유자효 시인의 시집 'AI와 시' 가 차지했다. 현대 문명의 첨단 화두인 인공지능을 깊이 있는 시적 언어로 승화 시켰다는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이어 우수상에는 신인호 수필가의 수필집 '아직도 마음은 길을 묻는다' 가 선정되어, 삶과 인간에 대한 진솔하고 담백한 성찰로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다. 이날 주영 대종회장은 축사를 통해 영예로운 수상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제9회 둔촌 이집 문학상을 수상하신 유자효 시인님과 신인호 수필가님께 대종회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려말 대문장가이신 둔촌 선조님의 고결한 정신을 잇는 이 문학상이 날로 발전하여, 머지 않은 미래에 둔촌문학상을 거쳐 간 문학인 중에서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영 회장의 격려와 당부처럼,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문학 행사를 넘어 둔촌 선조님의 학문과 유선(儒仙)으로서의 기상을 현대 문학 속에 다채롭게 피워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대종회는 앞으로도 둔촌 이집 문학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권위 있는 문학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숭조(崇祖)의 마음을 담아 적극적인 후원과 정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종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지파종회 소식

광릉부원군파종회

■ 간신(諫臣) 청백리공 (諱 之直)의 관직 생활

구독자 여러분! 필자는 청백리 공을 간신(諫臣)이라고 칭하였는데 여기서의 간신(諫臣)은 사헌부, 사간원의 관리로서 임금에게 간언을 임무로 하는 벼슬을 뜻한다.

청백리공께서 관인으로서 강직하고 소신에는 조금도 미동(微動)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선 소도지변(昭悼之變) 고마극간(叩馬極諫)은 뒤로하고 공께서 태종 조에서 관직을 살펴보면 태종 1년 강원도 관찰출척사, 내서사인(內書舍人) 태종 2년 강원도 안렴사, 태종 4년 사헌부 집의, 토관좌랑 벼슬을 지내셨다.

공께서 태종 조에 들어서 관직을 수행하면서 간관으로부터 탄핵 상소를 많이 받으시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소신과 절개가 뚜렷하였기 때문이다 불의(不義)에는 타협이 없으신 분이시다. 공께서는 왕의 자세 즉 태종(휘 방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분으로 왕으로써 지켜야 할 도(道)와 덕(德) 행(行)을 간관(諫官)으로서 가감 없이 상소하여 백성의 안위와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늘에 목숨을 맡기고 충간하였다. 공께서 상소한 내용을 한 토막 실어 본다. 때는 1402년(태종2)벼슬이 내서사인(內書舍人)으로 계실 때 좌정언(左正言)전가식 공과 국사를 논의하여 상소문을 3부(府)에 내려 보내어 의논하게 하였다.

상소 내용은 이러하였다.

옛부터 제왕(帝王)으로서 근검으로 일어나고 방탕

▶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한 욕심으로 망하지 않는 자가 없는 까닭에 대우(大禹)는 궁실(宮室) 낮게 짓고, 좋은 의복은 입지 않고, 성탕(成湯 중국 은 나라 왕)은 새벽에 일어나 간하는 말을 따랐고, 문왕(文王)은 조심하여 좋지 못한 옷을 입고 밭일에 나감으로서 한 없는 아름다움을 열었습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데, 전하께옵서는 총명한 자질로써 경사(經史)를 널이 보시와, 무릇 일을 하심에 있어서 움직이면 옛 선왕(先王)율법 받기에 편안한 여가가 없으시니 신하와 백성들이 다 삼대(三代)의 문명한 다스림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일입니다. 그러하오나 전하께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매우 좋아하시어 제도를 따르지 않으시고 대간(臺諫)의 말이 어쩌다 뜻에 거슬리면 엄하게 견책(譴責)을 가하시며 매와 개를 좋아하고 성색(聲色)을 즐겨하심이 아직도 여전하심니다.

이것이 곧 신민(臣民)들이 실망으로 여기는 것이옵니다. 업드려 바라옵건데 전하께서는 검약(儉約)을 숭상하시고 방탕한 욕심을 경계하시고 간쟁(諫諍)을 받아들이시고, 희노(喜怒)를 삼가시며, 날이 갈수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중국은 갈라지고 무너져 서로 다투어 공격과 정벌을 일삼고, 우리나라에서도 재변(災變)이 자주 일어나오니 바로 우리 군신(君臣)이 경인(庚寅) 신축(辛丑)의 난을 거울삼아 근심하고 조심하여야 할 때입니다. 삼가 얕은 소견을 아래와 같이 조목별로 열거합니다. 군수(軍需)는 갖추지 않을수 없습니다. 오늘날 경중(京中)이나 외방의 창고에 묵어가는 곡식도 없사온데 저화(楮貨)무역 함으로써 군량(軍糧)이 모두가 장사 아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오니 식자(識者)들이 유감으로 여기옵니다. 바라옵건데 전하께서 무역하지 말도록 하시어 군자(軍資)를 갖추게 하소서. 군정에서 필요한 것은 말(馬)보다 더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중국 조정에서 먼저 상(賞)으로서 내려주고 말(馬)을 바꾸는 것으로써 뒤를 따르니 이것이 이(利)를 주고 좋은 말을 얻고자 함이오라, 천왕(天王)으로서 제후(諸侯)를 대접하는데 도리가 아니옵니다.

전하께옵서 사대(事大)의 정성을 가지시어 감히 명을 어기지 아니하옵고, 신민(臣民)으로 하여금 다 매매하게 하여 운(運)을 지어 진헌하시니, 예절로 말하면 옳은 일입니다. 그러하오나, 좁고 작은 나라에서 나는 한도 있는 말을 가지고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신등은 말이 다 없어져서 힘이 기울어 질까 염려되옵니다. 만약 긴급한 사태가 있다면 장차 무엇에 의지 할 것입니까? 서경에 기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물건의 사용을 아끼면 백성이 넉넉해 진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에서 나는 이어대기 어려운 물건을 중외(中外)에 펴서 민속이 사치를 숭상하게 하심은 나라에 상서로운 일이 아니옵니다. 원컨대 이미 바꾼말을 제외하고 는 바꾸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남은 말값은 모두 다 중국에 돌려 보내시어, 능라단자는 진상하여 입으실 것을 제외 하고는 한결같이 모두 금단(禁斷)하소서. 도망한 자를 부르고 배반한 자는 받아 들임은 춘추(春秋)에서 깎아 내리는 것이 옵니다.

오늘날 요동 심양의 백성들이 기근을 핑계하고 망명하여와서 붙습니다만, 이들은 비록 본조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전에 이미 우리를 배반하였고, 오늘은 또 저들을 배반하니, 반복하여 믿기 어려움을 알 만 합니다. 또 이제 대국의 신하로서 섬기옵는데, 다시 배반자를 받아들인다면, 사대(事大)의 의리에 어긋 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도망하여 와서 붙는 자는 바로 붙잡아 되돌려 보내게 하고,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지직과 전가식을 부르고 지신사 박석명을 시켜 전지하기를 나의 과실을 비밀리에 아뢰어도 내 어찌 안듣겠는가? 이제 글을 이루어 사책(史冊)에 쓰게 하니 내 매우 가슴이 아프다 하고 마침내 의정부에 내려 보내어 사평부, 승추부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상소 내용을 사헌부 대사헌 이지(李至)등이 상소하여 이지직과 전가식을 죄주기를 청하였다(상소내용 생략) 이것은 거짓으로 성상의 불미(不美)함을 들어내어 실덕(實德)을 훼손 한 것 뿐이오. 임금을 사랑하는 도리에 어떠하오며 간신(諫臣)의 도리에 어떠합니까? 업드려 바라옵건데 전하께서는 유사(攸司)에 명하여 이지직과 전가식을 허망한 죄로써 국문하게 하고 외방으로 귀양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간관(諫官)이 말한 과실을 어찌 죄를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사헌부 관원 이지(李至)는 이 일로 인하여 물러가서 사직(辭職)을 올렸다. 내용과 같이 우라 광이 후손들은 청백리공 선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디에 서있던 옳은 일에는 기개(氣槪)와 기품(氣品)이 당당하기를 염원한다.앞으로도 청백리공의 활동 내용을 지면이 가능한 기고 예정이다.

-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문수 記

충희공종회

■ 충희공 선조 추석 성묘 실시



광주이씨 충희공종회(회장 봉수)를 비롯해서 5군 지파종회 회장 및 집행부는 2026년 10월 1일(목)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충희공 선조 묘역을 찾아 성묘를 드렸다. 이날 오전 5군 종회 집행부는 묘전에 모여 인사를 나눈 후 종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진설한 뒤 웅재 총무이사로부터 인사가 있었다.

이후 충희공종회 상재 부회장의 격려사도 겸하였다. 곧이어 삼봉종회 영래 총무이사의 약식 집례로 상재 부회장이 헌작하였고 참석자 모두 함께 참배를 드렸다. 이후 참사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음복하며 덕담을 나누고 선조님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였다.

이후 묘전에서 웅재 총무의 진행으로 충희공종회 현안에 대한 좌담회를 갖고 안을 토의 후 성묘 행사를 종료하였다.

일행은 자리를 식당(매운탕 집)으로 옮겨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숭조 돈목의 시간을 가진 후 귀경하였다. 한편 이날 식사비 전액을 상재 부회장이 협찬하였으며, 이밖에도 광릉부원군파종회, 그리고 문수 총무이사가 개별 협찬하였다. 끝으로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5군 지파종회 집행부에 감사드린다.

- 충희공종회 총무 웅재 記

■ 광림군(諱 廷立)諡 문희공 선조 431주기 불천지위 봉행



광릉부원군파종회(회장 봉수)에서는 2026년 9월 17일 광림군 서세 431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봉수 회장을 비롯해서 대종회에서 종덕 문화이사가 참석하였고 이밖에도 5군 지파종회 회장 및 집행부 그리고 참판공종회 前 선래 회장, 삼봉종회 前 성호 회장, 대종회 재경 화수회 용두 회장, 대종회 걸재 前 총무이사, 전국청장년 연합회 종우 회장 등 60여명의 참사 종인이 참석하였다.

제례 봉행 전 문수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내빈소개, 회장 인사, 대종회 종덕 문화이사 격려사, 이밖에도 지파종회 회장들의 추모사가 있었다. 이어서 행적 소개에는 대종회 前 걸재 총무이사의 애달픈 낭독이 있었다. 제례에는 삼봉종회 영래 총무이사의 집례로 축에는 만재 부회장, 초헌례에는 삼봉종회 종두 회장, 아헌례에는 오봉종회 충교 전 회장, 종헌례에는 사봉종회 석래 회장이 헌작하였고 좌우집사에는 종철, 종경, 문재, 무환 현종이 맡아 수고하였다. 참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백사 이항복 선생 撰

광림군 병조참판 시(諡) 문희공(휘 정립) 비명

경진년에서부터 신묘년까지 10년 사이에 새로이 조정(朝庭)에 나간 사람으로 친구가 3인이 있으니, 발자취를 같이하고 어깨를 견주며 글로써 서로 모이고 도(道)로써 강론하는데 그 사람은 이상공 명보 한음의 자(字)요. 또 사람은 이 참판 자정 광림군의 자(字)이요. 또 한사람은 나(이항복)로서 같이 선종(宣宗)을 섬기니 세상에서 삼학사(三學士)라 하였다. 하루는 내가 자정(휘 정립)에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인간성의 장단점을 가리며, 이 세상에서 잘 모르는 것을 말하였더니 자정(휘 정립)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말하기를 신(神)인가 어떻게 나의 일을 잘 가려내는가 하였다.

이것은 내가 자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서로 쳐다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참으로 지기지우(知己之友)로다. 다른 날에 내가 먼저 죽으면 자네가 묘지문(墓誌文)을 쓰고, 자네가 먼저 죽으면 내가 자네의 묘지문(墓誌文)을 쓰기로 하고, 서로 잊어버리지 말기로 하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후 을묘년에 나이 40으로 여산에서 객사를 하니, 上(임금)께서 삼도(三道)에 명을 내려 호상(護喪)하고 廣州(현재 주변)에 있는 선인의 묘소 근처에 장례를 지냈다.

그 후 20년이 지나 今上(임금) 7년이 되는 계축년에 크게 공신을 봉(封)하는데, 원종했던 모든 신하들이 다 계급(階級)을 올리게 되어 예(例)에 따라 영의정 증직을 받으니, 그의 아들 현담이 행장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며 명을 부탁하였다. 이 해에 명보(한음 이덕형)가 죽으니, 내가 울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수(壽)를 다하지 못하고 두 친구가 다 죽고 나만이 남아서 연달아 두 집안의 지문(誌文)을 쓰는 일을 보게 되니 나도 또한 사람이라 그 차마 못 할 일이로다. 李氏는 광주대성(廣州大姓)으로서 그 시조에는 휘 집(諱 集)이라는 분이 있는데 탁월한 큰 절개(節槪)가 있어서 목은 (牧隱 이색) 포은(圃銀 정몽주)과 특별히 좋은 벗으로 삼았다.

일찍이 요승(妖僧) 신돈의 부도(不道)한 행동을 나쁘다고 하였더니 신돈이 죽이기를 꾀함으로 부친을 업고 남으로 내려가, 영천에 숨어서 자기(自己)호(號)를 둔촌(遁村)이라 하였다. 조선(朝鮮) 조에 들어와서, 아들 지직(之直)이 소도지변(昭悼之變)을 당하여 말고삐를 잡고 두드리며 간(諫)함으로 크게 이름이 났었고 그 아들 인손은 우의정(右議政)이요 그 아들 극배는 영의정(領議政)이요 증손에 이르러 이건(以乾)은 유곡찰방으로서, 증직이 좌승지요. 휘 시무를 낳으니 장례원판결사로서 조용하고 깨끗하며 글 읽기를 좋아하고 남들과 교제하기를 삼가 하였으며, 고사전(高士傳)에 이름이 뛰어났다.

이조판서에 증직을 받았으며, 종실(宗室) 의원군 억(億)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가정병진(嘉靖丙辰)에 자정(휘 정립)을 낳으시었다, 자정을 낳으신 뒤 아씨(阿氏)가 병이 들어 젖을 먹일 수 없으므로 한 비복(婢僕)이 안고 외가로 데리고 갔다. 그 후 4세에 어머니에게 돌아오니 하는 행동이 보통 아이와 달라서 한 집안이 기특히 생각 하였다, 11세에 한서(漢書)를 최사문 립에게 배우는데 립(岦)이 항상 당세에 제 일류라고 칭찬하였다. 13세에 삼도부(三都賦)를 가지고 박사암(朴思庵) 순(淳)에게 보이니 사암이 크게 기특히 생각하였다. 그 후 이름을 크게 떨쳐서 세상에서 말하기를, 李氏 집에 문장아(文章兒)가 있다고 하니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이 다 한번 보고 싶어 하였다.

병자년에 성균관에 올라가고 경진년에 과거에 올라 의정부에 뽑혀 들어가고 신사 년에 사관으로 천거 받고 임진년에 승진하여, 예조좌랑 사간원 정언, 병조좌랑, 홍문관 수찬을 역임 하였다, 그 때에 율곡이 마침 전문형(典文衡)이었는데, 어느 날 경연자리에서 선종(임금)의 말씀이 근 일에 훈의강목(訓義綱目)을 강의하고자 하는데 연소하고 재주가 있는 총명한 신하를 몇 명만 뽑으라. 내가 미리 내장(內藏)된 어질(御秩)을 주어 강독하게 해서, 고문으로 삼고자 한다. 라는 명령을 내리니 조정(朝庭)에서 눈을 씻고 자세히 살피었다. 이때 율곡이 5인을 천거하니 명보(한음 이덕형)와 자정(이정립)과 내가(백사 이항복) 같이 참여했다. 서당에 있게 되어 휴가를 내리는 명을 받게 되니 한 때는 영광스러웠다.

이로부터 우리 3인은 벼슬 지내기를 대략 서로 같이 하였다. 계미년에 이조좌랑이 되고, 명년에 어사(御史)로서 호남 땅에 살기 어려운 백성을 구제 하였고, 이 때부터 이조, 병조정랑과 양사의 지평, 헌납, 홍문관 교리를 지내고, 기축년에 옥사(獄事)가 일어나 나와 같이 국청(鞫廳)의 낭관(郎官)이 되었다가 평난공신(平難功臣)으로 책봉 받고 또 장령, 집의, 사간, 응교, 전한, 직제학을 역임하고 신묘년에 승진하여 동부승지를 하였고, 얼마 있다가 형조참의로 옮기고 얼마 후 좌승지가 되었다.

임진년에 선종(선조)께서 서(西)쪽으로 파천하여 금교역에 이르러 쓸 때 자정(이정립)이 말씀드리기를, 종사의 위판(位版)이 아직도 개성에 남아있다고 아뢰니 上(임금)께서 곧 예조참의를 삼고, 가서 모셔오라 하니, 곧 바로 달려가서 성(城)밖에 이르니, 백성들이 달려가서 말하기를, 적장이 왔으니 헛되이 죽음만 당할 뿐 아무 이로 움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체도 하지 않고 곧 바로 성안으로 들어가서, 목주(木主)를 모시고 나와 평양까지 가게 되니, 벼슬을 병조참판으로 제수하였다.

적세가 날로 급하니 선종께서 장차 평양을 떠날 때 양궁(兩宮)길을 갈라서 가게 되니 나는(백사 이항복) 병조판서로서 임금을 뫼시고 서쪽으로 떠나고, 자정(이정립)은 병조참판으로 중전(中殿)을 호위하고, 동궁(東宮 왕세자)을 뫼시고 자산으로부터 순천, 개천, 희천을 거쳐 장동 평전을 들려, 곡산에 이르러 쓸 때 부친상을 듣고 돌아가다. 계사년과 갑오년 년 3년에 걸쳐 기용 할 것을 명(命)하였으나, 상례(喪禮)중 이라며 굳이 사양하기를 변함이 없으니, 上(임금)께서 특별히 옳게 여기시고 제수(祭需)를 내리시어 예(禮)를 베풀 으시었다. 3년 상(喪)이 끝나니 한성부 우윤을 배(拜)하시고, 나아가서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 때 임금의 명이 있어 나아가 뵈니, 上(임금)이 말씀하기를 서(西)행 할 때 상(喪)을 당한 비참(悲慘)했던 일은 내가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시니 자정이 울면서 그 때 시국형편(時局形便)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황해도에 들어가 먼저 효자와 열녀 그리고 모든 장사(將士)들이 공을 세우고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물어서 다 응분의 표창을 하였다. 때 마침 조정에서 처음으로 사회질서를 위한 법을 정하였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으니, 탐관과 교활한 아전들이 있는 곳에서는 마구 긁어 먹고 있는지라 자정(이정립)이 아뢰(牙纛 감사의 깃발)을 세워 비록 대관의 의범(儀範)이 있었으나, 그 행장(行裝)은 오직 일속(一束)의 서책(書冊)뿐이었다. 자신의 몸가짐과 아래 사람을 단속하는데 엄정하여, 하나도 사(私)가 없는지라, 모든 고을에서 소문을 듣고 손을 거두고 감히 불법한 일을 못하더라. 얼마 후에 병으로 사임하고자 하니, 유서애(柳西厓 유성룡)가 비변사로 있으면서 말하기를, 재신(才臣) 구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맑기가 이모(자정 이정립)같은 사람을 어디서 얻어 오겠는가 하였다.

선종(宣宗)에서 과연 자정(이정립)이 국사를 위하여 진심을 담은 것을 알고, 그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움을 걱정하다가, 公이 두 번 이나 사임하고자 하니 비로써 허락하였다. 이 후 조정에 들어와 광림군(廣林君)에 봉군 되었다. 자정(이정립)이 도승지 이순인(全義人)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3남을 낳으니, 현담, 원담, 두 형제는 음(蔭)으로 벼슬에 보(補)했는데 다 아들이 없고 그의 막내 진담은 사인(士人)인데 2자를 낳으니 다 어리다. 도승지(丈人 이순인)께서 임금의 행차를 따르다가 도중에서 별세하니 이때에 여산(礪山)에 들렸다가 장사(葬事)키로 해서 자정이 돌아가 장례(葬禮)를 치르기로 하였는데, 마침내 그 장지(葬地)에서 세상을 뜨다. 子政의 휘(諱)는 정립이오. 자호(自號)를 계은(溪隱)이라 했다. 처음에 자정 같은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도학(道學)으로 향(向)해서 율곡(栗谷)과 우계(牛溪)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학문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두루 일세(一世)의 名士와 널리 사귀어서 모두 다 수양하는데 힘이 되었고, 본래 성색(聲色)과 화리(貨利)에 욕심을 갖지 않았다. 모든 것을 아주 버리거나 금제(禁制)하는 법이 없고 스스로 그 옳고 좋은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어리석은 사람같이 하나, 사람과 더불어 서로 경계가 없어서 종일(終日)토록 서로 이야기 하여도 언제나 어긋남이 없고,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남의 한 가지 잘한 일을 들으면 문득 공경하고 탄식하여, 그대로 두지 않았으며 관(官)에 있어 일을 만났을 때에는 먼저 그 의(義)냐 이(利)냐를 살펴서 이로운 것 같으면 급히 일어나, 피(避)해서 장차 자기에게 큰 해나 끼쳐 망치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였고, 의(義)로울 것 같으면 용맹하게 달려가서 좋고 욕심나는 것같이 하여, 공경스럽고 공경스럽게 하며 조심성 있게 다루어서 조금이라도 흠이 생겨 종신(終身)토록 누(累)가 될까 두려워하였다. 부모를 섬기는데 지극히 효도하여 출입할 때면 반드시 고(告)하고 조석으로 반찬을 살펴보며, 이침부터 뫼시고 저녁까지 떠나지 않으며. 항상 모든 제매(弟妹)들이 가난해서 의지 할 때 없는 것을 가엾게 여겨 田土의 미호(美好)한 것을 골라서 우선 먼저 주고, 생산 작업에는 문득 못 본척하며 독서하고, 저문함에 있어서는 항상 모자라는 듯하며, 고요히 일실(一室)에 처(處)하여 닭이 울 때 일어나서, 점심때가 되도록 밥 먹을 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으니, 세상 사람이 초현(草玄 楊雄의 著)에 비유하더라.

銘하여 曰

온화(溫和)한 듯 엄숙 한 듯. 저 옥(玉)이 박(璞)으로 있는 것인가. 으슥한 듯. 서늘한 듯 저 얼음 산 구렁에 있는 것인가. 광주(廣州)땅 남쪽 구천(狗遷현 강동)아래쪽에 사척(四尺)높이의 봉분(封墳)이 있으니 이것이 곧 그대의 현택(玄宅)이로다.

문충공 오성 이항복 찬 (文忠公 鰲城 李恒福 撰)

- 광릉부원군파종회 총무이사 문수 記

문경공파종회

■ 문경공, 광양군, 정효공, 충장공 선조님 문효사에서 합동 불천위제 엄숙히 봉행

긴 여름의 무더위와 폭염을 무사히 견디고, 들녘의 오곡이 알알이 영글어 결실을 맺어가는 좋은 날, 광주이씨 문경공파종회(회장 종민)는 2026년 9월 8일(음력 7월 27일)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에 소재한 문효사(文孝祠) 사당에서 문경공(文景公) 파조님을 비롯하여 광양군(光陽君)·정효공(貞孝公)·충장공(忠壯公) 선조님을 모시고 합동 불천위제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이날 제례에는 광주이씨대종회 주영 회장을 비롯하여 10개 지파 회장과 대종회 및 각 지파 집행부 임원, 그리고 본손과 방손 등 100여 명의 종친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선조님들의 높은 위덕과 유업을 추모하고, 숭조돈목(崇祖敦睦)의 뜻을 되새기며 종친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문경공파 21대 광희 종손은 인사말을 통해 네 분의 불천위 선조님을 모시고 있는 종손으로서 합동으로 불천위제를 봉행하게 된 데 대해 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금년에는 문효사에 불천위로 모셔진 네 분 선조님의 유업과 정신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문효사 안내판을 새롭게 정비하고 선조님들의 행적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충장공 선조님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 준 문경공파종회와 충주청장년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광희 종손에게 감사패 전달

제례에 앞서 뜻깊은 감사패 수여식도 가졌다. 문경공파 21대 광희 종손께서는 문효사 대지를 문경공파종회에, 종가 세장장지를 문경공파 탄수종회에 각각 희사하였다. 이에 문경공파종회와 탄수종회는 종문의 발전과 선조 숭봉에 기여한 고귀한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광희 종손의 이번 희사는 선조를 숭앙하고 종문을 사랑하는 마음을 몸소 실천한 뜻깊은 선행으로, 문경공파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후손들이 선조님을 더욱 정성껏 받들 수 있는 소중한 터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날 참석한 종친들도 광희 종손의 깊은 뜻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선조를 숭앙하고 종문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진 귀감"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번 희사가 종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그 고귀한 뜻이 문경공파의 역사와 함께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지기를 기원하였다.



엄숙하게 봉행된 합동 불천위제

이날 제례는 선조님별로 제관을 정하여 정성을 다해 봉행하였다.

문경공파 파조님 제례에는 초헌관에 문경공파 21대 광희 종손, 아헌관에 광주이씨대종회 주영 회장, 종헌관에 문숙공파종회 용중 회장이 맡아 헌작하였다.

광양군·정효공·충장공 선조님 제례에는 초헌관에 문경공파 동고종회 성수 회장, 아헌관에 문경공파 우천공종회 종위 회장, 종헌관에 문경공파 탄수종회 성수 현종이 맡았다. 축관은 종철 현종, 집례는 탄수종회 종우 총무가 맡아 제례의 전 과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집사에는 종욱·종대·영희·문재·승희·대재·명희·종득 현종이 참여하여 각자의 소임을 정성껏 수행하였다.

불천위제는 공덕과 덕망이 높은 선조의 신위를 영구히 모시며 그 위업과 정신을 후손에게 길이 계승하는 우리 종문의 소중한 전통이다. 이날 문효사에 모인 종친들은 선조님들의 높은 덕행과 유업을 되새기며 숭조정신을 계승하고, 종친 간 화합과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이날 광릉부원군파종회 문수 총무께서 문경공파 파조님을 추모하는 화환을 정성껏 봉헌해 주셔서 불천위제의 뜻을 더욱 빛내 주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한편 이번 제례를 봉행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느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참례해 주신 종친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부족했던 부분은 세심하게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질서 있고 원만한 제례가 봉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성으로 제례를 준비해 주신 종친들께 감사

제례를 마친 후에는 농막으로 자리를 옮겨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술을 나누며 오랜만에 만난 종친들끼리 안부와 건강을 묻고 정담을 나누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번 불천위제를 위해 정성껏 제수를 마련하고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것은 물론, 이른 시간부터 제례 준비에 힘써 주시고 참례한 종친들을 위해 점심 식사까지 정성껏 마련해 주신 충주 지역 종친 여러분과 종가 며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선조를 숭봉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례 의식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제수를 마련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먼 길을 찾아온 종친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모든 과정이 곧 선조를 받드는 마음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정성을 다해 주신 종친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 제례가 원만하고 경건하게 봉행될 수 있었다.

또한 대종회 종덕 문화이사께서 참배객들을 위해 정성껏 타월을 준비하여 참석한 모든 종친들에게 선물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합동 불천위제는 대종회와 각 지파, 그리고 본손과 방손을 비롯한 많은 종친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조님들의 위덕과 유업을 기리고 종문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광주이씨 문경공파종회는 앞으로도 선조 숭봉의 전통을 소중히 이어가며, 선조님들의 고귀한 정신과 유업을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계승해 나갈 것이다. 또한 종친 간 화목과 단결을 더욱 굳건히 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종문을 만들어 가는 데에도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문효사를 찾아 제례에 함께해 주신 대종회 및 각 지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본손과 방손을 비롯한 모든 종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합동 불천위제가 선조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종문의 화합과 발전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 문효사 봉향 불천지위 네 분 행장

이곳 문효사는 문경공 휘 극감, 광양군 휘 세좌, 정효공 휘 연경, 충장공 휘 광악 네 분의 불천위를 봉향하고 있는 별묘이다. 원래는 각기 따로 모셨으나 현재는 네 분을 합설하여 시호인 문경공의 문과 정효공의 효에서 이름을 따 문효사라 편액 하였다.

1. 광성군 시문경공 (휘 극감) 행장

공의 휘는 극감이시고 자는 덕여이시며 호는 이봉이시다. 충희공의 이자이시고 세종 9년 1427년 한성 교동에서 탄생 하시었고 세종 26년 1444년 18세에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시어 한원에 들어 가셨다. 1447년에는 중시에 연이어 급제하시어 홍문관 전한 직제학 승정원 도승지 삼사 국자에 선임이 되시었고 28세에는 이조참의와 참판을 거쳐 8도도체찰사에 발탁(특진)이 되시고, 좌익공신으로 책록이 되시어 광성군의 봉작을 받으시었으며, 36세에는 형조판서 겸 홍문관 예문관의 제학을 배수하시고 세자시강원 우빈객이 되시었다.

1463년에 부친상을 2년 뒤에는 모친상을 연이어 당하시고 지나치신 효성과 많은 슬픔으로 몸이 극히 쇠약하여지신 나머지 기사회생치 못하시고 세조 14년 1468년 향년 42세에 서거하시니 예종 당시 왕세자께서 는 매우 슬퍼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봉은 충성스럽게 사람의 잘못을 간하였으며 충성과 호걸로 명성이 있는 사람인데 일찍 죽으니 어찌 아깝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고 세조께서도 부음을 듣고 수일간 철조를 하고 좌의정겸 세자부의 증직을 내리고 문경공의 시호를 내리셨다.

공의 학문이 고명하시고 문장과 품절이 용동(우뚝 솟아 뛰어나 움직인다는 말)하시며 도덕과 경세제민의 재능이 풍부하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국사라 칭하였다. 치적으로는 국조보감, 의방유취, 치평요람 등을 편수, 간행 하였으며 당시에 공의 손을 거치지 않고 편찬된 서적이 없다 할 정도였다고 한다.

2. 광양군 판중추부사(휘 세좌) 행장(문경공 장자)

공의 자는 국언이고 휘는 세좌이며 호가 한원이니 세종 27년 1445년 한성 교동에서 문경공의 장자로 탄생하였다. 공께서는 34년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많은 관직을 거치시며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성종 8년 1447년 장악원 첨정으로 식년 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 대사간에 제수 되었으며, 성종 13년 1482년에 폐비 윤씨 사사에 예방승지로 명을 받아 현지에 다녀왔다,(이 일로 인하여 갑자사화때 화를 당하셨다.) 성종 17년 1486년 정조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 왔는데 사신으로서의 품의를 지키고 외교수완이 능하여 명조에서 극구 칭찬을 받았으며 이 일로 광양군에 봉훈 되시고 성종 24년 1493년 자헌대부의 품계에 올라 경기감사가 되시었다.

연산군 2년 1496년 2월에 함경도 순변사 6월에 숭정대부 병조판서에 오르셨으며 연산군 4년 1498년 보국숭록대부에 판중추부사가 되었으나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파면당하고 갑산으로 귀양을 갔다가 다시 복직 되었다. 연산군 8년 1502년 예조판서가 되었다.

연산군 9년 1503년 선정전 양노연에 참석하여 연산군이 내리는 술잔을 어의(임금 옷)에 엎지를 실수로 온성으로 귀양 갔다가 이듬에 특방 되었으나, 대사헌 홍자하 대사간 최린등의 반대로 다시 강원도 평해로 다시 거제도롤 귀양 가시는 도중 연산이 자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경상도 곤양에서 4월 4일 스스로 목매어 서거하니 향년 60세이다. 이때 아들 4형제와 동생 세걸 계부 좌의정공(휘 극균)) 4촌 세광과 당질 수공 등 9인이 참화를 입었다. 2년 후인 병인년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 의정부 우의정겸 세자부에 추증 되었고 세사부조로 모시도록 하였다.

3. 탄수선생 시정효공 호는 탄수

자는 장길이고 호는 탄수 성종 15년 1484년에 문경공 증손으로 탄생하였다. 중종 2년 1597년 생원이 되시고, 중종 14년 1519년 형조좌랑이 되시고 현량과에 아원으로 급제하시어 사헌부 지평을 거쳐 홍문관 교리로 선임 받으셨다.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나며 아름이 귀양 보낼 사람들 중에 기록돠어 있었으나 중종이 어필로 지우면서 말씀 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의 정직을 안다. 귀양가게 하지 말고 단지 파직만 하여라" 하셨다. 이에 충주 용탄으로 물러나 사셨는데 당시 학자들이 탄수선생이라 일컬었다.

인종 1년 1545년 관직이 복관 되었으나 거절하시고 나아가시지 않았다. 명종 원년 1548년 향년 67세에 졸하시다. 공께서는 학문과 식견이 뛰어났으며 지조가 있었다. 학문은 세속에서 벗어나 고명한 경지에 이르러 덕망과 의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방에서 선비들이 모여와 그의 문하가 되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종제인 동고상공, 노수신(사위), 심건(사위)의 아들 심희수 3명을 영의정으로 배출하신 학자이시다. 선조 원년 1568년 이조참판의 증직과 아울러 광안군에 봉해졌다. 정조 14년 1790년에 이조판서에 추증 되었으며 시효를 정효라 내렸다. 충주 팔봉서원에 배향 되었다.

4. 광남군 시충정공 휘 광악

공의 자는 진지이고 , 휘는 광악이니 1557년 명종 12년 충북 충주에서 문경공 5대손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여 학문과 수신에 힘쓰기 보다는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는 것을 즐겨 1584년 선조 7년 무과 별시 을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연일현감, 이성현감, 경주판관을 거쳐 1592년 곤양군수에 올랐다.

공은 임진왜란으로 왜적이 대군을 이끌고 진주성을 포위하므로 목사 김시민은 고립되고 대세가 위급해지자 거창의 초유사 김성일의 명령으로 좌익장이 되어 전투도중 김시민이 부상을 당하자 그를 대신하여 총지휘관으로 병사들을 지휘한 끝에 왜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진주성을 지키는데 성공하였다.

1604년 경기방어사, 수원부사. 영흥부사들을 거치고 선무공신 3등으로 광남군으로 봉해졌다. 1606년 선조 39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를 거치고 1608년 52세 나이로 갑자기 서거하였다. 1711년 숙종 37년 충장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임진왜란 진주성의 승리의 숨은 영웅으로 전쟁기념관에서 주관하는 "11월 호국인물"로 선정 되시었고 2020년 12월에는 충주시 주관으로 선무공신 광악장군, 임경업장군, 이수일장군 등 호국 영웅들의 유물 특별전을 열기도 하였다.

- 문경공파종회 총무이사 종환 記

■ 문경공파 현감공 (휘 사단) 필진공계 안성종회 벌초 및 선조님 행장판 설치



광주이씨 문경공파 현감공 안성종회(회장 웅재)에서는 2026년 9월 5일(토) 웅재 회장을 비롯해서 60여 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선조님 묘역 환경미화 작업과 벌초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곳은 입향조이신 필진 공 선조 외에 후손 묘역이 잘 정비 되어있다.

오전에 모인 종인들은 늦더위를 잊은 채 구슬땀을 흘리며 선조님 묘역에 잡초를 제거한 뒤에 벌초를 단정히 하였다. 한편 이날 안성종회에서는 숙원이던 선조님(1代 둔촌 – 9代 사단)행적을 담은 행장 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고유하였다. 종걸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웅재 회장 인사와 이어서 종걸 총무이사의 선조님 행장 판 설치 배경 설명이 있었다. 자리에 함께한 후손들은 큰 박수로 집행부 노고에 화답하였다. 한편 이곳은 입향조(入鄕祖)이신 필진공 선조께서 임진왜란 시 이곳에 세거하시며 안성 종회를 기초하신 곳이다. 끝으로 선조님 행장 내역은 광릉부원군파종회 문수 총무이사가 근서(謹書)하였다.

- 문경공파 필진공 안성종회 총무 종걸 記

광천부원군파종회

■ 광천부원군파 24대손 이주호, 미국 애틀랜타 대교구사제 서품

" 7월 1일부터 조지아주 로스웰 성 피터 샤넬 성당 보좌신부로 사목"

광주이씨 광천부원군파 24대손 이주호(Juno Jasper Lee) 종인이 2026년 5월 30일 미국 애틀랜타 대교구의 사제로 서품되었다. 이 신부는 조부 대종회 前감사 이종선(22대손), 부친 이윤수(23대손)의 뒤를 잇는 후손으로, 미국에서 사제의 길에 오른 문중의 새 일꾼이다.

서품 미사는 조지아주 노크로스의 Holy Vietnamese Martyrs 성당에서 Gregory J. Hartmayer 대주교의 주례로 봉헌 되었다. 이 신부를 포함해 네명이 이날 사제품을 받았다. 대주교는 강론에서 사제직이 겸손의 직무이며, 사제는 제대에서 일어나는 은총의 원천이 아니라 그 은총을 전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현지 가톨릭 주간지 〈Georgia Bulletin〉에 따르면 이 신부는 33세로,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 뒤 어린 시절부터 품어 온 사제의 꿈을 쫓았다. 한국에서 만난 사제들의 기쁜 모습을 보며 사제가 되겠다는 뜻을 키워 왔고, 하느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걸어 왔다고 밝혔다.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어느 날 미사가 끝난 뒤 한 여성이 그의 속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다가와 "앞만 보고 가라"고 격려했고, 이 만남이 사제의 길에 대한 확신이 되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현재 한국에 거주한다.



이 신부는 2025년 5월 31일 로스웰의 St. Peter Chanel 성당에서 부제로 서품되었고, 이번 사제 서품과 함께 같은 성당의 보좌신부로 임명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사목을 시작한다. 타국에서 오랜 수련 끝에 사제의 길에 든 이 신부의 서품은 우리 문중의 큰 경사이다. 종친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앞길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 광천부원군파종회 영래 총무 記

광원군파종회

■ 광일회 제2차 벌초 행사를 마치며

광원군파종회(석래 회장)은 지난 9월 20일(일), 광주이씨 4대조이신 광원군 휘 극돈 선조님과 제5대조 감사공 휘 세정 선조님의 묘역을 정비하고 숭조의 뜻을 기리기 위한 제2차 벌초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오전 6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묘역의 벌초와 주변 환경 정화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특히 광원군파종회 석래 회장님. 감사공종회 점식 회장, 대종회 용위 부회장을 비롯하여 용준 재무이사, 양재 용관, 용인, 용승 재경청장년회장, 영재, 태호, 용부회장 등 13분의 종원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시어 정성을 다해 묘역을 가꾸어 주셨다. 선선한 새벽공기 속에서 시작된 행사는 한낮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협동과 정성으로 차질없이 마무리되었다. 덕분에 선조님의 묘역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비하며 숭조의 뜻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무릎 관절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가시덤불속에 직접 들어가 우거진 칡넝쿨을 제거하며 솔선수범해 주신 점식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벌초 행사를 통해 선조를 공경하고 종친간의 화목을 다지는 숭조돈목(崇祖敦睦)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후손들에게도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종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늘 건강하시고 선조님의 은덕 아래 각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 광일회 회장 윤재 記

424호(9월호) 바로잡습니다

■ 2페이지 하단 <대종회 단신> 코너 첫번째 기사 타이틀 변경
변경 전 : 둔선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 행사 분과위원장 간담회의
변경 후 : 둔촌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 행사 분과위원장 간담회의

■ 4페이지 <충희공종회> 글쓴이 변경
변경 전 : 광릉부원군파 총무이사 문수
변경 후 : 충희공종회 총무이사 웅재

■ 12페이지 <구독 및 찬조금 명단> 중 <충주청장년회> 금액 변경
변경 전 : 100,000원 ⇨ 변경 후 : 300,000원

※ 다음 호부터는 인쇄물 발행 전 교정·교열 과정을 더욱 철저히 거쳐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한가위 맞아 청장년회 청백리공 선조 묘소 정화작업

청장년회(회장 용승)는 지난 9월 20일, 다가오는 한가위 성묘를 앞두고 묘역 정화작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이날 작업은 하남에 위치한 인화이씨 할머니 묘소를 비롯해 둔촌 선조님, 청백리공 묘소 등 총 3곳에서 동시에 추진되었다. 올해들어 세번째 실시된 이번 벌초는 늦더위를 피하기위해 아침 일찍 시작되었으며, 종원들은 지난 수년간 쌓아온 숙련된 솜씨로 각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해 묘역을 깔끔하게 단장하였다



정화작업을 마친 후 정성스레 준비한 주과포를 올려 선조님들의 음덕을 기리는 제를 봉행하였다. 이후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용승 회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함께해 준 종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노고를 격려하며 다가오는 세일사 전에 한 번 더 작업을 진행하자고 뜻을 모았으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뜻깊은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 재경청장년회 총무 용세 記

재경화수회, 9월 월례회의 성황리에 개최

재경화수회가 지난 9월 15일 대종회 회의실에서 9월 월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인 63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화수회의 깊은 역사와 회원들의 높은 참여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회의는 용두 회장의 숭조돈목(崇祖敦睦)의 뜻을 담은 개회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용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풍성한 가을의 길목에서 많은 종친들께서 밝은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 이 자리가 문중의 우의를 더욱 두텁게 하고 화수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모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회무 보고 및 주요 안건 논의는 연로 회원 복지 혜택 강화 집중 토의

이어 지난 8월에 진행되었던 화수회 간사회의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하고, 이에 따른 주요 토의 안건들이 다루어졌다. 회의에서는 문중의 발전과 회원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다각도로 논의 되었다.

특히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연로하신 회원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 혜택을 확대였다. 화수회는 문중의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장수 축하금 지급 제도와 회원 사망 시 지급되는 부의금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다. 참석자들은 연로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화수회의 새로운 활력이 될 신입회원 소개 시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롭게 입회한 신입회원은 다음과 같다.

■ 좌의정공파: 석민 회원, 광천부원군파: 종구 회원, 광원군파: 용춘 회원

참석자들은 문중의 일원으로 새롭게 발을 내딛는 신입회원들에게 따뜻한 박수와 환영의 인사를 건넸으며, 신입회원들 역시 문중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학강의”는 탄천 지직 청백리공의 생애와 업적 조명

화수회 행사의 꽃이라 불리는 보학강의 시간에는 문중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조상의 덕업을 되새기는 뜻깊은 강좌가 펼쳐졌다.

이번 보학강의는 ‘탄천 지직 청백리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목사공파 영균 강사는 청백리공의 탄생과 성장과정부터 시작하여, 관직에 진출한 이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높은 공헌과 청렴결백한 공직관을 알

기 쉽게 설명하였다.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조상의 숭고한 정신과 공직자로서의 귀감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으며, 문중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참석한 한 회원은 "조상님의 훌륭한 업적을 알기 쉽게 들을 수 있어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고, 가문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한층 커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10월 월례회의 기약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모든 순서를 마친 참석자들은 다가오는 10월 월례회의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으며, 각 계별 소모임을 통해 친목과 우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뒤 성황리에 해산하였다.

- 재경화수회 총무 윤태 記

400년 종가의 시간…칠곡에서 만난 선비의 삶

칠곡서 광주이씨 종택·고택 탐방



낮은 산에 둘러싸인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기와를 얹은 고택과 굽은 돌담길이 이어졌다. 기울어진 담장과 닳은 문지방, 오래된 기둥에는 여러 세대가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9월 3일 제13회 서울대 동창회 국토문화기행에 참여한 동문 60여 명이 경북 칠곡 매원마을 일대를 찾아 광주이씨 종가의 삶과 조선 선비의 학문 전통을 살펴봤다.

이날 동문들은 석담종택과 감호당, 매원마을 고택, 박곡종택, 동산재 등을 차로 둘러봤다. 평소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석담종택도 이날 특별히 문을 열어 동문들을 맞았다. 광주이씨 대종회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와 동문들과 동행하며 각 종택과 재사의 내력을 설명했다.

첫 방문지인 석담종택에서는 석담의 16대 후손인 이병구 박사가 동문들을 맞아 문중의 역사와 종가 문화를 소개했다. 광주이씨 칠곡 문중은 대대로 많은 학자를 배출했으며, 칠곡에 남아 있는 광주이씨 불천위 사당 다섯 곳도 오랜 문중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날 종부는 직접 준비한 과일 효소 음료를 내놓으며 종가를 찾은 손님들을 맞기도 했다. 광주이씨인 이주영(법학 70) 동문도 이날 기행에 함께했다. 이 동문은 "동문들이 광주이씨 집성촌인 칠곡을 찾아와 문중으로서 큰 영광"이라며 "국토문화기행을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함께 익혀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동문들은 매원마을을 방문했다. 매원마을은 17세기 석담 이윤우(1569~1634)가 터를 잡은 뒤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오며 광주이씨 집성촌으로 발전한 곳이다. 1900년대 초 마을이 가장 번성하였을 때에는 420호 이상의 기와집과 180여 호의 초가가 있었다고 한다. 6·25전쟁 당시 마을에 주둔한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한 유엔군의 대규모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지금도 종택과 고택, 재사 등이 곳곳에 남아 있다. 2023년에는 마을 전체가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매원마을의 학문 전통은 후학을 가르치던 강학 공간인 감호당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퇴계 이황의 학맥을 계승한 석담이 세운 이곳은, 그가 스승의 삼년상을 마치고 자제들과 함께 매원으로 들어온 뒤 자신의 살림집보다 가장 먼저 마련한 배움의 터전이다.

이후 강학 공간을 중심으로 후손들의 집이 들어서며 오늘날 매원마을의 골격이 만들어졌다. 후손들도 잇따라 문과에 급제했고, 석담에서 후대까지 4대에 걸쳐 한림을 배출했다. 마을 앞 산봉우리에 '장원봉'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과거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인물이 많이 나온 데서 비롯됐다고 전한다. 동문들은 감호당을 나온 뒤 고택과 골목 사이를 천천히 살폈다. 담장과 굽은 길 등 공간 구성에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예법과 생활방식이 담겨 있었다. 이어 찾은 귀암고택에서는 귀암 이원정의 13대 종손인 이필주 종손이 동문들을 맞았다. 종택을 지켜온 종손에게 문중의 내력과 불천위제사, 대대로 이어온 선비 정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박곡 종택에서는 조선 선비의 역사 위에 겹쳐진 근현대사의 흔적을 마주했다. 박곡 이원록(1629~1688)의 종가인 이곳은 한때 86칸 규모의 큰 집이었지만 6·25전쟁을 거치며 대부분 훼손됐다. 현장에는 지금도 당시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동문들은 종택 기둥에 남은 총알 자국 등 전쟁의 흔적을 살피며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종택에 얽힌 사연에서도 격동의 역사가 전해졌다. 현장 설명에 따르면 일제는 제적등본에 찍힌 '종선(種善)' 도장 위에 붉은색 '불(不)'자를 덧찍어 '종불선(種不善)'으로 만들며 가문에 불온의 낙인을 찍었다고 한다. 이 집안의 직계 후손들은 독립운동에 나서고 전쟁에 참전했으며, 독립·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가 13명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찾은 동산재는 광주이씨 석전문중 3대의 재사가 한 울 안에 모여있는 곳이다. 낙촌 이도장의 낙촌정과 아들 귀암 이원정의 경암재, 손자 이담명의 소암재가 한 공간에 자리한다. 특히 손자의 재사부터 아들, 아버지의 재사 순으로 세워져 3대의 순서와 건립 순서가 거꾸로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1960년대 인근에 미군기지 캠프 캐럴이 들어서면서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졌지만, 문중의 노력으로 재사 일대가 보존됐다고 전한다. 동문들은 세대를 달리하는 건물을 차례로 살펴보며 조상을 기리고 문중의 전통을 이어온 재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칠곡군에서도 동문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떡과 선물을 전달했다. 기행을 마친 동문들은 칠곡의 종가문화와 전통을 직접 접한 소감을 전했다.

정병일(독문71) 동문은 "평생 처음 찾은 칠곡에서 여러 면모를 볼 수 있어 아주 감동적이었다"며 "광주이씨 종친회의 따뜻한 환대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대복(행대원77) 동문은 "이번 기행을 통해 칠곡 생과 선비들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느낄 수 있어 뜻깊었다"며 "함께 한 동문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출처 : 서울대 총동창신문 9월호 6페이지

종인 칼럼

둔촌 선조님 탄신 700주년을 기리면서

성묘 철 어느 날, 한낮에는 아직 여름 기운이 남아 있는 일자산 둘레길을 모처럼 올랐다. 정상 무렵 디딤돌과 침목의 개수를 세며 올라가다 숨이 턱까지 찰 때쯤, 깔딱고개가 끝나고 나타난 평평한 분지 한쪽에 서 있는 커다란 입석 돌난간에 걸터앉았다. 숨과 땀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니 돌에 새겨진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독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시간을 아껴 공부하라.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리니, 머리 위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흐르느니라』

『자손에게 금 한 광주리를 물려준다 해도 경서 한 권을 가르치는 것만 못하니라. 비록 쉬운 말이나 너희들을 위해 간곡히 일러두노라』

700년 전, 둔촌(遁村) 이집(李集) 선생께서 자손들에게 남기신 경계의 말씀(정훈)이다.

둔촌 선생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 빛바랜 한지 위 먹빛 글들을 현대인이 쉽게 읽도록 발간한 『둔촌 이집선생 시문집』을 다시 꺼내 보았다. 유독 내 시선을 오랫동안 잡아끈 것은 거창한 학문적 포부나 시대에 대한 개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버이를 향한 간절한 효심과 가족의 보존, 그리고 난세를 함께 건너가던 벗과의 깊은 우정에 관한 기록이었다.

고려 말, 역적 신돈이 국사를 전행함에 있어서 의로운 얘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역적으로 몰려 야산과 들녘으로 몸을 숨겨야 했던 둔촌 선생. 세파의 거센 바람을 피해 "숨는 것은 결코 비겁해서가 아니라, 화를 피하여 몸을 숨기는 바로 그것이 덕(德)이다"라는 신념을 삶으로 실천했던 그분의 발자취를 가만히 묵상해 본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돈의 서슬 퍼런 칼날을 피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쪽으로 달아나야 했던 절박한 피신 길. 목숨이 오가는 아슬아슬한 경계에서도 선생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다. 늙고 기력이 쇠한 어버이를 등에 업고, 처와 어린 세 아들을 이끌고 관군의 눈을 피해 험한 산길을 넘어야 했던 선생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밤이 되면 차가운 바위굴에 어버이와 처자를 모시고, 자신의 체온으로 어버이의 떨리는 손발을 녹여가며 써 내려간 시에는 선생의 눈물이 먹물처럼 배어 있다. 수개월간의 피신 길, 들판에서 자고 풀뿌리로 연명하며 세찬 늦가을 바람과 추위, 배고픔, 도적과 독충의 위협을 견뎌내야 했던 그 모진 고초를 어떤 의지로 견뎌냈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모진 피신 길 끝에 처자를 인근 절로 피신시키고, 기력을 다해 도착한 친구의 집. 하지만 어버이를 모시고 겨우 도달한 그곳에서 두 부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리라는 기대감을 단번에 가로막는 냉혹한 상황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생일 잔치를 벌이던 과거 급제 동기이자 절친한 벗 최원도(崔元道) 선생은 두 부자를 향해 역적이라며 호통치고, 그들이 앉았던 자리의 마루까지 뜯어 불태워 버렸다. 그러나 이는 얼마 되지 않아 몰아닥칠 관군의 눈을 속이기 위한 목숨을 걸어둔 연극이었다. 최원도 선생은 밤이 깊어지자 은거해 있던 풀숲으로 달려가 둔촌과 그의 어버이를 부둥켜안고 울며, 자신의 집 사랑방 다락에 은밀히 숨겨주었다. 자칫 들통나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는 무서운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최원도 선생은 무려 4년 동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그들을 돌보며 친구와 그 어버이의 목숨을 지켜내는 데 모든 것을 걸었다. 어느 날 집안 여종은 이 사실을 목격하고 소문이 날까 봐 비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다락에 모신 지 1년 만에 돌아가신 벗의 어버이를 자기 부모처럼 남몰래 정성을 다해 장례 치르고, 자신이 점지해 두었던 명당 묏자리에 모셨으니, 최원도 선생이 보여준 우정의 깊이는 가히 필설로 다 표현할 길이 없다.

세상이 그들을 버렸을 때, 두 선비는 좁고 어두운 다락방에서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문을 논하고 시를 읊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사교가 아니었다. 서로의 곧은 지조를 알아보며,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거룩한 영혼의 교류였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 그들이 주고받은 묵직한 시구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눈앞의 이익에 따라 쉽게 맺어지고 풀어지는 요즘의 가벼운 관계들이 문득 부끄러워진다.

은밀한 다락방 속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품었던 두 선비의 체온이 세월의 켜를 넘어 오늘 나의 가슴으로 전해져 온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지켜내야 할 가치는 그리 거창한 곳에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있게 해준 어버이를 향한 효심, 가족의 보존,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곧은 신의. 수백 년 전 둔촌 선생과 최원도 선생이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것은 바로 이 소박하면서도 단단한 인간의 길이었다.

폭정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던 신돈이 처형되고 나서야 4년 만에 개경으로 돌아온 둔촌 선생은, 얼마 후 벼슬을 내려놓고 여주로 낙향하여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도은 이숭인 등과 시를 주고받으며 여생을 보냈다.

천곡 최원도 선생이 4년간의 은거 생활을 마치고 개경으로 떠나는 둔촌 선생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남기셨는데, 구구절절이 가슴을 후벼파는 감동을 느낀다.

『둔촌에게 드리다. 강개하게 시국을 한탄하여 눈물로 옷깃 적셨는데, 유리(流離) 중에도 지극한 효성은 유음(幽陰) 까지 달했노라. 한산(漢山)은 멀고 멀어 운연(雲煙)만이 아득한데 나현(羅峴)은 굽이굽이 돌아 초수(草樹)도 그윽하구나. 앞 뒤의 두 마렵(馬鬣)은 하늘이 가려준 것인데 그 누가 그대와 나 두 사람의 마음을 알 것인가. 바라건대 대대로 길이 이와 같이 하여 교정(交情)이 이단금(利斷金)토록 하자구나.』

훗날 목은 이색에게 보낸 글에서 선생은 "내가 거친 들판으로 도망쳐 숨어 정적의 화를 피할 때 겪은 일들은, 아무리 흉악하고 잔인한 자가 듣는다 해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회고하였다. 둔촌 선생이 견뎌낸 4년의 고초가 얼마나 깊고 참혹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속에서 전율이 일어난다.

이후 고려의 종말과 함께 정몽주, 이숭인 등 시대의 문사들이 정국의 화를 입었던 것을 떠올리면, 일찍이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난 둔촌 선생의 결단이 얼마나 깊은 혜안이었는지 곰곰이 되새기게 된다.

어느덧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의 가로등도 졸린 눈으로 빛을 떨구는 자정이 가까워진다. 하지만 책장을 덮은 마음속의 훈훈한 온기는 좀처럼 식지 않는다. 효율과 속도가 미덕이 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우리는 너무 많은 관계를 손쉽게 맺고 또 쉽게 놓쳐버리곤 한다. 지척에 두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했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습과, 세파에 치여 안부조차 아득해진 친구의 얼굴이 잇달아 떠오른다.

빛바랜 책장을 가만히 쓸어내려 본다. 돌에 새겨진 글씨는 세월에 닳아 언젠가 마모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남긴 참된 효와 우정의 정신은 글을 읽는 이의 마음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남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수백 리 밖의 안부를 주고받고 손쉽게 인맥을 쌓아가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우리는 그 편리함만큼 진정으로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는지, 목숨을 걸고 신의를 지켰던 선비들의 깊은 우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가 나직한 목소리로 멀리 계신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싶은 밤이다. 내일은 오래된 벗에게 정성 어린 안부 한 조각을 건네봐야겠다. 수백 년 전 두 선비가 어두운 다락방에서 밝히었던 그 따뜻한 등불을, 이제는 내 삶의 작은 모퉁이에도 가만히 켜두고 싶다.

<청심문학 창간호 기고문>
- 대종회 상임부회장 주홍 記

〈故 冠廷 이종환 회장님 3주기 추모사〉

"생백년 지천년(生百年 志千年)! 회장님의 뜻은 영원히 푸르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화학공업의 선구자이자 숭고한 나눔으로 시대의 등불이 되어주신 故 관정 이종환 회장님의 서거 3주기를 맞아, 여전히 메워지지 않는 그리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삼가 추모의 잔을 올려 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회장님께서 남기신 거대한 발자취와 따뜻한 온기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리고 우리 종친들의 가슴 속에 서서히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회장님의 100년 생애는 참으로 정도(正道) 그 자체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시고,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화학공업을 꽃피우시며 삼영그룹을 일구어 내신 열정은 우리나라 현대 산업사의 위대한 이정표였습니다.

무엇보다 "空手來 滿手有 空手去(빈손으로 왔다가 손을 채운 다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며 1조 7천억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 결단은,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요 쓰는 것은 예술이다. 버는 것은 천사처럼 못했어도 쓰는 데는 천사처럼 하겠다'던 회장님의 평생 신조를 입증한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관정재단 설립이래 누적 3,039억원의 장학금!

회장님의 손길로 배출된 1만 4천여 명의 관정 장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일등 인재로 자라나 회장님이 고대하시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한 광주리의 황금을 물려주느니 한권의 경서를 더 가르쳐라(遺子滿瀛金 不如教一經)'

이는 廣州이씨의 1대조이신 고려말의 문인 둔촌 이집 선생께서 후손들에게 남기신 정훈입니다. 관정 회장님은 자서전 '정도'에서 "전 재산 환원의 계기는 어려서 조부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둔촌 이집 선조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정 회장님 기부정신의 뿌리는 바로 둔촌 선조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회장님께서는 40여년 전 제4대 廣州이씨 대종회 회장으로서 회관을 마련하시고 사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시어, 우리 종문의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굳건한 기틀을 놓아 주셨습니다.

'백대지친(百代至親)'의 유훈과 둔촌 선조의 정훈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회장님이야말로 오늘날 18만 廣州이씨 종인 모두가 가슴 깊이 자랑스러워하고 칭송하는 위대한 선조가 되셨습니다.

"삶은 백년을 가고 뜻은 천년을 간다(生百年 志千年)"고 했습니다.

회장님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으나, 회장님께서 남기신 '대한민국 발전과 인류 공영'의 숭고한 정신과 유훈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영원히 불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정 회장님! 오늘 3주기 추도식을 맞아 이 땅의 모든 이들과 저희 廣州이씨 종인들은 회장님이 보여주신 찰나와 같은 삶 속의 영원한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회장님께서 뿌리신 인재 양성

의 씨앗들이 훗날 거목이 되어 이 나라를 받치는 모습을 천상에서 부디 뿌듯한 미소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회장님 영전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천국에서 부디 경건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18만 廣州이씨 종인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숭고한 유지를 이어가고 계신 이석준 관정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유가족분들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관정 회장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광주이씨대종회 회장 이주영 올려드립니다.

광주이씨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를 위해 일어선 광주이씨 독립유공자』 출간 헌정 고유제 개최



오른쪽부터 이수구 회장, 이호순 전 총무, 이용위 전 회장, 이양재 편찬위원장, 이준형(이수구 회장 외손자, 경주이씨)

'광주이씨독립유공자유족회'는 광주이씨 집안의 독립운동사를 집대성한 책 『나라를 위해 일어선 광주이씨 독립유공자』를 둔촌 선조님께 보고하는 뜻깊은 헌정(獻呈) 고유제(告由祭)을 9월 19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에 소재한 둔촌 묘소에서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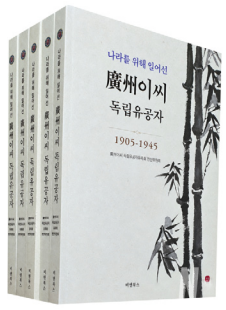
이날 헌정 고유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애국계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광주이씨독립유공자유족회'의 이수구 회장, 이용위 전 회장, 이호순 전 총무, 이양재 편찬위원장 외 관계자 2인 등, 6인이 참석하여 순국선열(殉國先烈)의 숭고한 발자취를 추모했다.

이호순 전 총무의 제문 낭독으로 완성된 책을 봉헌하며, 이수구 회장이 초헌, 이양재 편찬위원장이 아헌, 이용위 전 회장이 종헌을 올리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광주이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생애를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하고 독립유공가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 편찬 사업을 처음 발의하고 주도한 이용위 전 회장과 이호순 전 총무는 "이 선양(宣揚) 사업은 우리 문중의 독립운동가분들을 더 확인하고 나라로부터 추서 받는데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독립운동하였으나 추서를 받지 못하였던 다른 분들의 공적도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천명(闡明)했다. 아울러 이양재 편찬위원장은 "잊혀 가거나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광주이씨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편찬의 의의를 강조했다.

최초의 문중 독립운동사 『나라를 위해 일어선 광주이씨 독립유공자』 소개

『나라를 위해 일어선 광주이씨 독립유공자』 는 특정 문중의 독립운동가를 다룬 첫 번째 저술이다. 그러면서도 문중 독립운동사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 독립운동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전체 독립운동의 흐름에 광주이씨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참여했는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번에 '광주이씨독립유공자유족회'가 직계 선열들의 운동사를 정리한 것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지역과 시대, 활동 영역을 넘나들며 지속되었는지를 조명하여, 독립운동가들도 엄연히 나라에 공헌한 인물로서 문중에서 기억해야 할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판계에서는 이 책의 내용이 보편성을 띄고있어 다른 문중 독립운동사 편찬의 전범(典範)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 편찬위원 記

정가 : 2만 5천원 / 문의 : 이양재 010-4815-3615

출처 : © 뉴스N제주

광이산악회 소식-9월

등산 스틱으로 다진 건강과 화합, 발걸음도 가볍게

■ 등산 스틱으로 '단디' 무장한 힘찬 출발

광이 산악회의 오랜 아쉬움 중 하나는 일부 회원들이 등산 스틱 없이 산행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에 산악회 집행부는 회원들의 무릎과 하체 골격 및 근육의 건강을 지키고 더욱 안전한 산행을 지원하고자, 이번 산행에 참가한 모든 회원에게 등산 스틱을 지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9월 13일 오전 8시 30분, 신촌역 3번 출구에 모인 회원들은 지급받은 등산 스틱으로 든든하게 무장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스틱을 손에 쥐고 4.5km 코스를 향해 힘차게 첫발을 내딛는 회원들의 모습에서 한층 더 높은 자신감과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

■ 무악정에서의 소통과 안산 봉수대의 빼어난 비경

초록빛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조선 시대 서적 보관 관청의 이름을 딴 정자인 '무악정'에 다다랐다. 이곳에서 산악회원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산악회의 미래를 위한 개정 회칙(안)의 취지를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청취하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해발 295.9m의 안산 정상 봉수대에 올랐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정상에서는 건너편 인왕산과 북한산의 웅장한 능선은 물론, 한강과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파노라마 전망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이어 자락길 전망대로 이동해 인왕산과 서대문 일대의 전경을 감상한 후, 고즈넉한 숲길 속에 자리한 능안정을 거쳐 안전하게 하산 코스로 접어들었다.



■ 끈끈한 종친의 정을 나누며 무사히 마친 산행

푸른 서대문독립공원과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종착점으로 하여, 2시간 30분간의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산행 후에는 인근 맛집으로 자리를 옮겨 지친 몸을 달래주는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특히 이번 산행에는 오랜만에 참석해 주신 5대 산악회장 용백(광원군파) 고문께서 산악회의 무궁한 발전과 종친 간의 화합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제의해 주셔 자리를 한층 더 빛내 주셨다.

회원들의 안전을 향한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와 종친들의 뜨거운 성원이 어우러진 이번 9월 산행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끝을 맺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종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9월 20일 둔촌 묘소 벌초 시행 소식

- 광이 산악회에서는 매년 4~5회의 둔촌 묘소 벌초 행사 시행.
- 금번 추석제례를 앞둔 벌초라 타 지파 벌초행사와 겹쳐 산악회원 참가자가 평소 20명 이상에서 20명 미만으로 감소.
- 금년 마지막 벌초 (11월 1일)은 타 지파 벌초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였음.
- 사인공 종회에서 벌초 찬조금을 기탁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광이산악회 산행 안내

- 날짜 및 시간: 10월 25일 (마지막 일요일) 9시
- 모이는 곳: 신림선 관악산역 1번출구 밖
- 코스: 관악산역 - 서울대정문 - 캠퍼스순환도로 - 후문 - 강감찬장군사당 - 식당
  약 6.5Km, 소요시간 약 3시간

둔촌 선조 탄신 700주년 기념품(한정판)

- **금액 :** 1세트당 70,000원 (타이슬리·뱃지·벨트)
- **입금처 :** 기업은행 024-098339-04-169 광주이씨대종회
  받는분 표시내용 : 예) 문숙용문기념 (지파명, 이름, 기념)
- **연락처 :** 02) 735-1720

경품

1번, 27번(탄생연도), 62(탄생월일),
100, 200, 300, 400, 500, 600,
700번째 구매자.



판매 이익금은 둔촌 선조 탄신 700주년 효도기금으로 적립됩니다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6년 9월 구독 및 찬조

이 름	금 액	주 소
이성수	20,000	세종 조치원
이건규	10,000	서울 광진
이용운	10,000	부산 수영
이종우	10,000	경기 여주
이종남	10,000	서울 광진
이인수	10,000	부산 금정

이 름	금 액	주 소
이용문	10,000	충남 홍성
천미공종회 10X10,000=100,000		
이종욱	10,000	충북 충주
이승수	10,000	경기 남양주
이일부	10,000	충북 충주

이 름	금 액	주 소
이종용	10,000	경기 양평
이종한	10,000	서울 강동
이호재	10,000	충북 충주
이종길	10,000	경기 안산
이정재	10,000	대전 대덕
이종웅	10,000	경기 용인

이 름	금 액	주 소
이종우	10,000	충북 음성

▶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봐주십시오.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으나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6年 10月 15日

<제425호>
廣州李氏會報

발행인 : 이 주 영
편집인 : 이 주 홍
주 간 : 이 종 덕
발행처 : 광주이씨대종회

www.gwanglee.or.kr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1-8, 광릉빌딩 501호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1720@nate.com